

## ■ 제19회 문장청소년문학상 본심 심사(감상&비평) 이소 문학평론가

비평은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상과 이해뿐만 아니라 풍부한 이론적 사유가 요구되는 형식이기에, 이론적 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 저자에게 가장 어려운 글쓰기 형식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에 올라온 글들은 직관적인 감상과 자기 표현을 넘어 새로운 맥락을 창안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인 글들이었다. 특히 다음 세 편의 글은 성실한 독자의 수준을 넘어서는 재능과 재기발랄한 리뷰어의 차원을 초과하는 노고를 겸비했기에, 독후감과 달리 저자의 특정한 관점을 확보하고 논리를 개진해야 하는 비평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기꺼이 모험하고 사랑하는 도로시」는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아름다운 글이었다. 작품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독해하고, 특히 작품의 이미지를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한 다음 자기 삶을 향한 고찰로 옮겨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장미 꽃잎 속의 형제들」은 만면에 강력한 에너지와 패기가 느껴지는 글이었다. ‘이중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품 전체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태도가 어쩔 수 없이 글쓴이의 다음 작업을 고대하게 만들었다. 당선작이 된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괴물로 자라난다」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탄탄한 글이었다. 작품에 대한 솔직한 감상과 그 감상을 심도 있는 사유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비평적 태도를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이해도가 높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어색하지 않게 길어올리는 솜씨에 크게 망설이지 않고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응모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와 더불어, 청소년 시기에 부지런히 고전을 읽길 바란다는 어찌보면 뻔한 당부의 말을 덧붙이고 싶다. 이 시기에 충분히 고전을 섭렵하여 ‘이미’ 교훈이 된 영역을 학습해두면, 동시대 작품을 읽을 때 ‘아직’ 교훈이 되지 못한 당대성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을 내파하는 동시대적 감각을 얻기 위해, 한때 최첨단이었으나 지금은 전통이 된 고전을 읽어두길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청소년 저자에게 완성된 비평문을 작성하길 요구할 순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학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맥락을 꾸준히 확보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동료이자 선배로서 모든 응모자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